

2019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2019년 3월 29일)

플로어 질문 및 의견 정리

2019년 심포지엄에서 질문지를 통해, 플로어질문을 통해 나왔던 질의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괄호 안의 내용은 법인사무국 연구담당자가 문맥상 내용을 유추하여 넣은 내용입니다.

1. 지역 내 장애인과 취약, 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본당과 소외 계층과 연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을 어떻게 돕고 지원할 수 있는지,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활동 활성화 필요) 따라서 본당과 사회복지현장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카리타스의 실천은 서울대교구를 통하여 각 지역의 본당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본당을 한 중심으로 (주체) 보기 때문에 신부님의 역할에 따라 실천의 양,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1) 격차(본당 간)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카리타스인들의 한 구심체로 묶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오대일 : 어떤 주제의 심포지엄을 해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본당 신부님들이 잘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다.

3. “제발” 본당에서 사회사목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4. 우아영 박사께 나의 돌봄과 이기적 마음의 경계를 어떻게 두면 좋을지요?

→ 우아영 : 경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성찰과 자기돌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겠다. 자기성찰과 자기돌봄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한다. 큰 의미에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FGI) 때 성찰이라는 범위가 협의적으로 해석됨을 보았다. 성찰은 돌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반성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실무자들은 성찰이라는)교육 안에서 반성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 협의적 개념을 깨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5. 김정연 박사께 가톨릭정신의 보편성과 인간존재의 개별성과의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자기성찰과 자기돌봄의 차이는?

→ 김정연 : 질문이 어렵다. 보편성이 신자와 비신자와의 경계가 들어있었는데 사랑실천에 있어서 신자와 비신자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한 차이가 없음을 연구결과에서 알았다. 비신자의 경우는 가톨릭

법인임을 알고 왔고, (가톨릭교회의 사랑실천이)보편적인 사회복지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비신자 분들은 가톨릭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는데 신자들이 오히려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다. (가톨릭신자들이 오히려)비신자들이 가톨릭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익숙하나 비신자나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FGI내용 중에)기관장으로 신부님이 계신 곳에서 (가톨릭교회의)색채를 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있었던 것들이 놀라웠다. 이렇게 (가톨릭이라는 정체성이)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톨릭 정신이 색채를 줄여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측면 발견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러본다.

→ 우아영 : 개별성이 존중될 때 보편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 김성우 : 공동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동선은 카리타스의 핵심가치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극대화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인데,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들의 품격이, 존엄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을 한다. 가톨릭교회의 보편성, 개별성을 구분 짓는 것 보다는 공동선으로서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하느님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우리들의 고귀한 품격이 존중되고 그 품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박동호 : 비유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에게 펼쳐지는 표현양식이 다르고 아이의 욕구가 다르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그 때(아이)나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나 청년이 되었을 때나 장년이 되었을 때나 같듯이, 보편성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고 개별성은 생애주기에 맞게 욕구가 다르고 욕구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는 것이 다른 것, 이것이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보편성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다.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어머니도 있다. 미움까지 보편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한 경쟁을 보편이라고 주장한다. 세상은 '다 그래'라고 말이다. 어느 분야나 적자생존이나 경쟁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부지불식간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경쟁은 삶에서 여러 원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경쟁 역시 보편적인 사랑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이 우리 교회가 믿는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에 수렴되지 않으면 악이라고 말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박해나 수난을 감수한다고 한다.

보편적 사랑을 실현하는 표현양식으로서의 가톨릭의 고유함이 있을 것이고, 그 고유함이 필요로 하는 곳, 그것이 실현되는 장치를 찾는 것이 숙제이지 사랑이 다 똑같다고 해서 아이에게도 우유를 주고, 청소년 때도 우유를 주고, 장년 때도 우유를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흔히 말하는 보편성과 개별성, 이기심과 자기관리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 절대 기준이 되면 오늘날 같은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재앙을 맞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장애우(X) 장애인(O) 교정바랍니다.

→ 법인사무국 : 말씀해주신 장애우라는 표기를 ‘장애인’이라는 표기로 교정하여 최종 원고를 업로드 해놓았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표기 교정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

7. 카리타스인의 사랑실천에 대한 추가 이야기

→ 우아영 : (우리 발제에 대해)김성우 신부님과 정선희 관장님이 토론해주었다. 그 중 인상 깊게 듣고 울림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김성우 신부님이 말씀하신 조직적 차원에서의 정체성 고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 실무자들을 만났을 때 기관차원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면 할수록 이직률이 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공동의 관심사로 미션과 비전 나아가야 할 가치와 지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기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연구에 보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카리타스에서 지역사회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보는 마음과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항상 딜레마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면, 카리타스가 박동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때론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킬 만한 여지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소홀히 할 만 한 여지를 만들어주는 결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고민, 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실천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연구결과의 파급성과 확장성에 보면 자원봉사자나 자원교사분들이 사랑실천의 주체로서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놓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실천을 보다 잘 운용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사랑실천에서 주체로 설 수 있는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실천의 주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도울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화로서의 주체로서 가톨릭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까를 보았을 때 교구,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가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가톨릭의 네트워킹과 조직화의 자산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8. 자원봉사 통계를 보면서 자원봉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인가 싶었고, FGI에서 본당에서 봉사자가 준다는 것에 공감이었다. 이런 맥락이 열심히 하는 분들 중심으로 설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카리타스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실천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 종사자만 카리타스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있었다. 현재는 사랑실천이 잘 되고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서비스제공은 가톨릭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움직인다. 본당에서 자원봉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청년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본당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복지라는 사랑실천이라는 균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회복지회에서 고민하면 좋겠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지금 독려할 수 있을까 싶다.

사회적경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당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와 봉사를 연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랑실천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9. 좋은 연구에 대해 감사한다. 유인물에 보면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 88페이지와 89페이지의 나비허브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김성우 신부님이 기관정체성을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크게 와서 닿았는데, 우리 사랑실천을 해야 할 주체가 복지 종사자들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리타스라고 한다면 거기서 취약계층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주체들이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들이 사랑이 넘쳐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89페이지 마지막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카리타스 교육이라든지, 서번트리더십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있지만 정작 사랑을 못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차별성이 사랑의 기쁨에 넘쳐서 사는 종사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우 신부님께 기관 정체성이 종사자들의 행복감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었다.

→ 우아영 : 자료집 88-89p에 나온 것 같이 오랜 시간 이야기 했고 의미부여를 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 라는 입장이라기 보다 사랑실천의 주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입장에서 나를 채우기 위한 입장의 이야기가 많았다. 당시에 반성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난다. 소명의식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음이 와 닿으면서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 김성우 : 기관의 정체성과 종사자분들의 개인적인 자기사랑의 관계성은... (토론 때)정선희 관장님께서 토론 문 읽으셨을 때 강론을 듣는 것 같았다. 교황 베네딕토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통해 폭풍과도 같은 카리타스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끝나고 여운이 남듯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회칙 39항에 나온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사랑을 체험하십시오.’라고 한다. 종사자들에게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왜 못하는 지 묻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관이 종사자들부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10. 자원봉사 실태조사에 대한 추가

→ 신성희 : 토론이나 질문에 대해 FGI에서 나온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당 실태조사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실제 경험해보면 자원봉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 했었다. 실제 전체 통계를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자원봉사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실태조사 내용이)조금은 과장되었을지 몰라도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구하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본당에서 원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하고 싶은 활동이 다르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FGI에)참여자들은 도시락봉사에 일손이 필요한데, 평일에 여기 참여할 분들은 부족한 것이다. 실제 신자들은 다른 활

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봤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당에서 하는 사회복지활동 등이 가톨릭만의 특성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FGI 신자분들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본당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답을 얻고 싶다면)신자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